

‘14년 만에 복귀’ 이영애에 확신 준 영화 ‘나를 찾아줘’

6년 전 실종된 아들 봤다는 연락받고 아이 찾아나선 스릴러 영화 최근 토론토 국제영화제 초청돼 ‘호평’...오는 27일 개봉 예정

6년 전 사라진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배우 이영애가 영화 ‘친절한 금자씨’ 이후 14년 만에 스크린에 돌아온다. 그의 복귀작은 스릴러 영화 ‘나를 찾아줘’다. 이영애는 “‘친절한 금자씨’ 못지 않게 전환점 되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기대와 바람이 있다”는 말로 기대감을 높였다.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압구정에서 영화 ‘나를 찾아줘’ (감독 김승우) 제작보고회가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김승우 감독을 비롯해 이영애 유재명 박해준 등 배우들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나를 찾아줘’는 6년 전 실종된 아들을 봤다는 연락을 받은 정연(이영애 분)이 낯선 곳, 낯선 이들 속에서 아이를 찾아 나서며 시작

되는 스릴러 영화로 김승우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최근 제44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디스커버리 섹션에 초청돼 호평을 받았다.
영화는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는 정연의 의문의 전화를 받고 홀로 아이를 찾아 낯선 곳으로 향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자신의 등장을 경계하며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사람들 사이에서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을 몰고 온다. 극이 전개될수록 충격을 거듭하며 마침내 밝혀지는 진실과 영화가 전하는 현실적인 메시지가 여운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작품은 이영애가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대미를 장식했던 ‘친절한 금자씨’ 이후 14년만에 극장에서 선보이는 작

품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이날 이영애는 14년만의 스크린 복귀에 대해 “시간이 빨리 지나갔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히려 같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감정이 교차한다. 일단 기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역할은 실종된 아들을 찾아나서는 강인한 엄마 정연 역할을 맡았다”고 역할을 설명했다.
14년만의 복귀작으로 ‘나를 찾아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좋은, 완벽한 연극 대본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사리 오를 받았을 당시를 회상했다.
이영애는 스크린에 14년 만에 복귀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늦게 결혼해서 가족 이루고 엄마가 됐다. 가정에 집중하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 줄 몰랐다.



김승우 감독(왼쪽부터), 이영애, 유재명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CGV 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나를 찾아줘’ 제작 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나를 찾아줘’는 6년 전 실종된 아들을 봤다는 연락을 받은 ‘정연’(이영애 분)이 낯선 곳, 낯선 이들 속에서 아이를 찾아 나서며 시작되는 스릴러다.

20~30대 배우로서 온전히 저만 생각하고 지냈다면 40대는 아이를 위해 집중하는 시간이 됐고 그 시간이 지양분이 돼서 좋은 작품

만날 수 있는 큰 뿌리가 되지 않았나 한다”며 “‘나를 찾아줘’는 어떻게 보면 제게도 운명이고 감사한 인연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

리고 배우로 균형 맞춰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를 찾아줘’는 오는 27일 개봉한다.

YG “빅뱅 태양·대성, 10일 용인서 제대 예정...돼지열병으로 장소 변경”

“장소 협소해...방문 자제해주시길 당부”



그들 빅뱅의 태양과 대성이 10일 용인에서 군 제대한다.
두 사람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4일 “국방부에 따르면 태양과 대성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오는 11월10일 전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각각 복무 중인 부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검출 접경지이자

중점 관리 지역으로서, 팬분들과 취재진의 방문이 예상되는 두 사람의 전역 장소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군 관계자 설명”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변경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도 두 사람의 전역 당일 별도의 주차 공간 마련이 어렵고 부대 앞 장소가 매우 협소해 자칫 팬 여러분과 취재진의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이오니 방문을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태양은 지난해 3월12일 강원도 철원 청성부대로 입소했으며, 대성은 태양과 하루 차이인 3월13일 강원도 화천 아기자부대로 입소한 바 있다.

뉴스1

송가인 단독 콘서트 ‘가인이어라’, 10일 MBC 특별편성

오프닝부터 엔딩까지 4200여 명 관객과 호흡



가수 송가인의 단독 콘서트 ‘가인이어라’를 안방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다.
4일 송가인 측은 “지난 3일 진행된 단독 콘서트 ‘가인이어라’를

오는 10일 오후 6시30분 MBC에서 특별 편성, 방송으로도 만나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3일 공연에서 송가인은 4일 정오 공개되는 신곡 무대를 비

뉴스1



KBS 2TV ‘연예가중계’ 36년 만에 “폐지 아닌 종료”

KBS 2TV ‘연예가중계’가 36년 만에 막을 내린다.
4일 KBS 관계자는 ‘연예가중계’ 종영과 관련 뉴스1에 “36년 동안 오랜 사랑을 받아왔지만, 프로그램 돌러싼 제작 환경과 형식 등에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상반기중 새로운 시대 트렌드에 맞춰 확 달라진 포맷과 내용의 연에 정보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예가중계’는 지난 1984년에 처음 방송된 뒤 국내 대표 연예 정보 프로그램으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왔다. 하지만 시대에 발 맞춰 36년 만에 종영을 결정했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